



시각 효과 치중,

체계적 연계학습 소홀

총 120자,

‘천자문’ 제목 안 맞아...

한자어 비중 너무 적어

《**마법 천자문**》
과 한자 교육

글 | 송재소(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한자교육이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의 문자정책, 특히 한글과 한자를 둘러싼 문자정책은 무수한 곡절을 겪어왔다. 한글전용과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양측이 팽팽히 대립해 오다가 1970년 전격적인 한글전용 정책을 단행한 이래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 한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급기야 한글을 전용하는 일간지(日刊紙)까지 창간되고 전문적인 학술서적에서조차 한자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한자, 한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오랜 기간 한글과 공존하며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든 한자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른 것이다. 또 여기에는 세계의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과의 관계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자가 병기(併記)된 표지판이 등장하더니 전경련에서는 입사시험에 한자문제를 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특히 초등학교들의 한자교육 열기는 대단하다. 이에 편승하여 상업 출판사들의 한자교육 교재도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한자 급수시험에 대비한 교재만 해도 수십 종이 나와 있고 기타 한자 학습교재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내용과 체계가 비슷비슷한 한자교재 중에서 올해 출간된 《마법 천자문》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만화를 통하여 한자를 익히게 엮은 특이한 책이다. 책의 표지에 표기된 바와 같이 “한자가 저절로 기억되는 이미지 학습만화”이다. ‘손오공의 한자 대탐험’



이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 이 책은 손오공의 기상천외한 모험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한자를 익히게 만들었다. 어린 아동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재미있게 한자를 공부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일단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한자 교재와 앞으로 나올 이와 유사한 책들을 위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우선 《마법 천자문》에 한정해서 그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책의 제목이 내용과 맞지 않다. 《천자문》은 6세기 경 중국의 주홍사周興嗣가 양무제梁武帝의 명을 받아 지었다고 하는 특정한 책의 이름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주홍사의 《천자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령 '천자문'을 특정 책이 아닌 '천 개의 글자를 모은 책'으로 보더라도 무리가 따른다. 이 책은 한 권에 20자의 한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섯 권을 합해도 120자밖에 안 된다. 이 시리즈 전체의 계획이 밝혀져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천자千字를 다 소화하려면 50권의 분량이 될 것이다. 또 주홍사의 《천자문》은 제목이 말해 주듯 천 개의 글자를 사용해서 만든 '문장'이지 단순한 글자만 나열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법 천자문》이라 하려면 한자를 사용한 '문장'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이 책의 구성에 관한 문제이다. 우리가 아동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는 목적이 낱개 글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낱개 글자의 음과 뜻을 익힘으로써 우리말의 7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漢字語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알게 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나아가서 한문 문장 독해의 기초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아마도 초등학교 학생일 터인데, 초등학교 학생의 학습활동에서 긴요한 것은 한자어일 것이다. 각각의 글자가 결합하여 어떻게 하나의 개념어概念語가 만들어지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초등학교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한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가 뛰어난 조어력造語力이기 때문이다.

《마법 천자문》은 이 점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가 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나

마 편성되어 있는 한자어 부분도 체계적인 연계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제1권에 한정해서 예를 들어보자.

28면의 “風”자를 이용한 한자어 학습란에 “強風”과 “風力”이 예시되어 있는데, “強”은 5권에 나오는 글자이고 “力”은 1권의 136면에 나오는 글자이다. 《마법 천자문》의 제1권은 한자를 처음 배우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것인데 이렇게 아직 배우지도 않은 글자가 들어간 한자어를 제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8면의 “大”자가 들어간 한자어에서도 “大門”과 “大王”이 예시되어 있는데, 역시 “門”은 132면에 가서야 나오는 글자이고 “王”은 이 시리즈 여섯 권에 아예 수록되지 않은 글자이다. 차라리 “大”자 부분에는 앞에서 나온 “地”자를 사용해서 “大地”를 가르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리고 “風力”은 뒷부분의 “力”이 나오는 부분에서 다루어야 하고 아울러 앞서 나온 “水”와 “火”를 활용하여 “水力”과 “火力”도 함께 다룬다면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체계적인 연계학습이 이루어져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의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연계학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 이상의 예는 들지 않겠다.

● 이 글을 쓴 송재소는 1943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하여 서울대 영문과 및 동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1984년 서울대에서 《다산문화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한문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다산시 연구》 《몸은 곤궁하나 시는 썩지 않네 : 옛시인을 만나 인생을 논하다》가, 옮긴 책으로 《다산시선》이, 엮은 책으로 《꿈하늘》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책이 한자의 시각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한자어 학습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글자와 글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낱말을 익히게 하여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초등학교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또 그것이 한자를 배우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175면의 “耳目”도 그냥 “귀와 눈”이라고만 풀이되어 있는데, 이를 좀더 활용하여 “남의耳目이 두렵다”라는 문장을 보이고 “남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볼까 두렵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마법천자문》에는 숫자가 없다. 제2권에 “九”자만 들어 있을 뿐이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九”만 수록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도 1권 125면에 “五月”을 예시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렇게 볼 때 1권부터 6권까지 각 권의 한자 선정과 배치도 좀더 치밀하게 재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이 책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난 데에는, 이 책의 집필자들이 한문교육의 전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한 바 크다든 생각도 해본다. **한문**